

**Jef Klazen, Marcus Green 및 Chris Cogburn 변호사, 미국에서의 중재 집행 현황 논의**

2019 08 8

‘중재에서 승리한다고 반드시 지금 판결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.. 미국에서 중재 판정 집행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, 각 단계에는 특유의 법적 사안이 관여됩니다.’ 코브레 & 김 국제 판결 집행 팀의 핵심 인원인 Jef Klazen, Marcus Green 및 Chris Cogburn 변호사가 *Global Arbitration Review*에서 발행하는 지침인 *The Arbitration Review of the Americas 2020* 최근호의 지면에서 미국 내 중재판정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기회를 논합니다.

세 변호사는 미국 사법체제에서 비협조적인 상대방에 대하여 어떻게 중재합의를 집행하는지 상술합니다. 중재판정을 미국 법원의 판결로 전환하는 방법에서 미국 주 및 연방 법을 이용하여 판결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방법까지 세 변호사는 중재판정 집행의 규제 현황 및 채권을 현금화하려는 판결 채권자에게 왜 미국이 매력적인 관할인지 설명합니다.

이 기사는 2019년 8월 처음 발행된 GAR(Global Arbitration Review)의 *The Arbitration Review of the Americas 2020*의 발췌문입니다.

전체 기사는 [여기](#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